이진호 jinho.lee.z@miraeasset.com

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

Energy Bites

국제유가, Higher for Longer

1Q26 Dallas Energy Survey
단기 국제유가 전망치 상향

26년 말 국제유가 전망 $74: 미국 텍사스 인근 135개 기업 경영진의 26년 말 유가(WTI) 평균 전망치는 $74로, 4Q25 전망치인 62달러 대비 12달러가 상승했다(조사 기간은 3월 11일~19일). 반면, 5년 후 WTI 전망치는 배럴당 79달러(4Q25 74달러)로 26년말 전망치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. 26년 말 미국 천연가스(Henry Hub) 가격 전망은 $3.60로 오히려 4Q25 전망치였던 $4.19 대비 하향 조정되었다.

미국 셰일 생산비용 상승 지속
미국 신규 유정 BEP $6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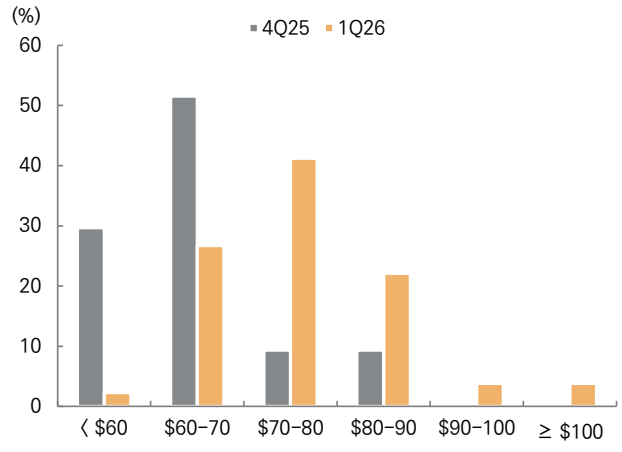
미국 셰일, 손익분기점(BEP) 6년째 상승: 미국 페르미안 신규 유정 손익분기점(BEP)은 2025년 65달러에서 2026년 67달러로 상승했으며, 기존 유정 손익분기점도 41달러에서 43달러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. 특이점은 대형 업체들과 중소형 업체들의 생산 단가 차이가 오히려 벌어졌다는 점이다. 대형 업체들(생산량 ≥ 1만 b/d)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61달러에서 59달러로 낮아졌지만, 중소형 업체들(생산량 < 1만 b/d)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66달러에서 68달러로 높아졌다. 단기적으로는 높은 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차별화 가능성이 낮다. 하지만 추후 유가가 다시 70달러 수준으로 안정화될 경우, 대형 업체들과 중소형 업체들의 실적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.

아직은 증산 계획이 없는 미국 셰일 업체들: 설문조사가 진행된 기간의 평균 WTI 가격이 95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, 2026년에 추가로 생산 유정을 늘릴 것이냐는 질문에 변화없음(50%) 답변이 가장 많았다. 소폭 증가(26%)와 대폭 증가(21%)도 비중이 낮은 답변은 아니었으나, 유가가 높아진 상황임에도 아직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.

애널리스트 코멘트
국제유가 Higher for Long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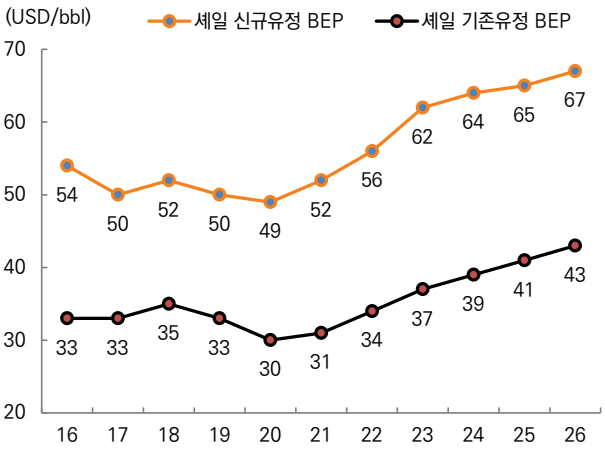
신규 투자가 두려운 미국 셰일: 국제유가는 미국-이란 전쟁이 종전되더라도 당분간 높게 지속되다가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전망이다. 지금 당장 시추기를 늘려도 생산량 증가까지 4~5개월이 걸리는 셰일 입장에서는, 그 사이에 유가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. 더욱이 중동 지역의 높은 재고 수준과 에너지 인프라 피해, 생산 재개 지연 등도 유가의 빠른 안정화가 어려운 이유다.

그림 1. 26 년 말 WTI 가격 전망



자료: Dallas Fed Survey,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2. 미국 셰일 손익분기점(BEP) 유가 추이



자료: Dallas Fed Survey,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